

# 대통령실, 尹-權 문자에 “尹, 이준석 부정적 언급한 적 없어”

### “尹, 당무에 지침 주거나 하지는 않아” “李, 특별히 오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민생단) 코로나지 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지원팀장인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원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무려 1000조 원에 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친 2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새로 받은 대출만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 이슈로 야기된 지금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 이겨

낼 수 없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선 당시의 공약 상당수를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민생 정치’의 실현은 커녕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나 책임자가 부재하다”며 “국가 담당 역할을 대신 감내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상응하는 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능, 무책임, 무기력 등 3무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가가 최근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했고 가동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 민생당이 두 달 넘게 현장을 다니고 또 들은 내용을 갖고 7대 민생 입법을 시작했다. 그걸 중심으로 민생특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민생특위 의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리된 게 있고 간사 간 합의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경에서 합의하면서 몇 가지 요구해 관철된 게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예산을 추가했다.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관련 사업인데 그중 하나가 새출발 기금이다. 소위 ‘시드머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정국을 거치며 힘들어서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종료로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하게 성토했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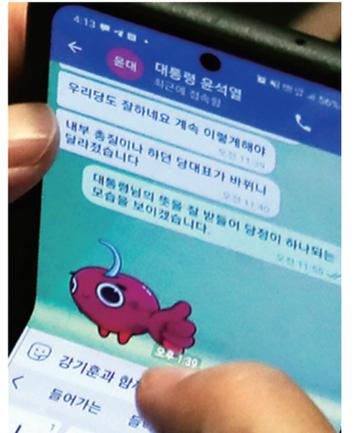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박사는 “제가 최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보고 있다. 경제 방향, 재정 전략 회의, 긴급금융지원, 세제 개편

안 등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부자,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위 박사는 “또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보면 엄정 획기적인 일을 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법인세를 22%에서 28%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26%까지만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게 결국은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위 박사는 퍼펙트 스톱(복합위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이 급등한 민간소비지출 감소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강력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와 스테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지출유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유지가 되어야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결국 경제적 강자들 중심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주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불공정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후환경변화(ESG)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위한 대책마련 주문

### 관내 농어민의 경영부담 경감방안 마련 집중

보성군의회는 지난 7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5896억원 대비 939억원이 증가한 6835억원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날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 관련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이상기후,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시름하는 농어민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빠지지 않고 주문하면서 관내 농어민의 경영부담 경감방안 마련에 집중하였다.

특히 “관내 농어업시설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비용만 지원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방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농어민들의 유류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농가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과 함께 관내 농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8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보성=김택순기자

## 홍준표 “대통령도 사람...이제 그만하고 민생 정치로”



### “당대표가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켜”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자 내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 있었겠나”라며 확전 자체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소위 ‘윤해관’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와 안철수-이준석의 불화도 계속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렀다”며 “이제 그만두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들을 좀 하시라. 이러다가는 어렵사리

잡은 정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후보)에게 선택하고 한달여 만인 12월2일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이 대표와의 갈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했고, 윤 대통령은 만찬 다음날 울산에서 이 대표를 만나 ‘울산 합의’를 이뤘다.

홍 시장은 올해 1월 초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두번째 갈등 국면에서도 당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선거 두 달 앞두고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대선 포기”라며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지를 추락의 본질적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최이슬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